

태권도 시범경연대회 격과 채점기준에 관한 심판의 인식

-2019 태권도원 경연대회 시범부문을 중심으로-

박동영(백석대학교 교수) · 반은아*(백석대학교 겸임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태권도 유관기관의 시범경연대회와 태권도원 경연대회 시범부문 격과 채점기준에 대한 심판의 인식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권도 4대 유관기관에서 주최·승인한 시범경연대회의 현황과 대회규정을 분석하였으며, 2019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2019태권도원 경연대회 시범부문의 심판 5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태권도 4대 유관기관에서 주최·승인한 시범경연대회 모두 경기규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태권도원 경연대회 시범부문의 격과 채점기준에 대한 심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첫째,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채점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적 평가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즉 시범경연대회가 공정한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기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2019 태권도원 시범경연대회, 격과 채점기준, 심판

* baneuna@hanmail.net

I. 서 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이자 210개국의 회원(세계태권도연맹, 2020)을 보유한 태권도는 우리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심신을 수양하는 무도이면서 경쟁을 통해 승패를 겨루는 스포츠이다.

그중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종목은 겨루기, 품새, 시범이 있으며, 겨루기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7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국제 스포츠이다(배진남, 2020. 1. 23). 또한 품새는 2018년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겨루기의 뒤를 이어 올림픽 진출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으며(한혜진, 2016. 6. 27), 시범은 국내 대회를 통해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겨루기, 품새와 같이 시범이 국제 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한 경기화는 1992년 대한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열린 태권도한마당이 시초가 되었다(김기동, 2012). 태권도가 지나치게 겨루기 위주로 발전하면서 상실한 무도성을 회복하는 한편(이승환, 2014) 태권도 기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품새, 격파, 호신술, 태권체조 등을 겨루는 종합대회가 탄생함으로써 태권도 전반의 기술 향상은 물론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경연의 장으로 성장하는데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후 규모를 확대하여 세계태권도한마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김기동, 2012), 현재는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연맹의 4대 유관기관에서 개최·승인된 시범경연대회가 전국의 태권도생활체육대회에서 시범경연부문이 활성화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김신호, 정현도(2015), 김영진, 전정우(2018), 신기철, 구본철(2017), 신호철, 이숙경(2015), 이용주, 허재성, 김기남(2019)등의 태권도 시범을 주제로 진행된 사회과학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시범경연대회는 경기규정의 모호함, 평가기준의 부재, 심판의 자질문제, 미숙

한 대회운영, 응급처치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규정과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는 공정한 경기규칙에 따라 승패를 겨루는 스포츠의 핵심요소인 만큼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범경연대회에서 경기규정 및 채점기준을 분석하거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하다.

시범경연대회와 같이 심판의 주관적인 판정이 경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체조, 피겨스케이팅, 댄스스포츠,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등의 종목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채점규정집을 통해 경기 전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평가영역을 세분화하여 심판판정의 오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성희, 2015; 김미선, 2018; 이한술, 2017).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는데 한 예로 최근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국제체조연맹은 3D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AI)심판’ 제도를 2019년 5월 주니어대회에서 시범 운영하여 선수들의 동작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채점방식을 채택한 후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주미, 2019. 4. 3.).

그러나 시범경연대회는 여전히 ‘무엇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크고 작은 대회가 개최되고 있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판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김영진, 2018; 이용주, 전민우, 정재환, 2019; 이용주, 허재성, 김기남, 2019).

이에 본 연구는 태권도 유관기관의 시범경연대회 현황 및 대회규정을 분석하고 2019태권도원 경연대회 시범부문에서 심판으로 위촉된 5명의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해당 대회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의 채점기준을 분석하는 한편 현재 시범경연대회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태권도 시범경연대회의 경기규정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태권도 시범이 보다 공정한 대회로 거듭나 향후 국제 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비확률 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의 하나인 유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이용하여 2019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2019태권도원 경연대회 시범부문에서 심판으로 위촉된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본 대회의 심판으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대회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태권도 유관기관에서 대표시범단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매년 유관기관의 시범경연대회 심판활동을 통해 시범경연대회 환경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연구 참여자들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자와는 과거 시범단원으로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심판활동을 통해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명	성별	연령	학력	2019년 시범경연대회 심판경력
AAA	남	40대 초반	박사	대학교총장기(배)태권도대회 심판 위촉 한국대학태권도연맹대회 심판 위촉
BBB	남	30대 후반	박사	대학교총장기(배)태권도대회 심판 위촉
CCC	남	30대 후반	박사	대학교총장기(배)태권도대회 심판 위촉 한국대학태권도연맹대회 심판 위촉
DDD	남	30대 초반	박사	대학교총장기(배)태권도대회 심판 위촉 한국대학태권도연맹대회 심판 위촉
EEE	남	30대 중반	석사	대학교총장기(배)태권도대회 심판 위촉

2. 조사도구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문헌연구(literature research)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태권도 유관기관 중에서 2019년 시범경연대회를 주최·승인한 대회(세계태권도한마당, 한국대학태권도연맹대회,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 태권도원 경연대회)를 수집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사이트, 학위논문, 국내 학술지 논문을 참고하여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2) 심층면담

질적연구 방법에서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관점, 생각, 경험 등의 해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태권도학과 교수 2명과 연구원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협의를 통해 면담 지침서를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반 구조화된 질문지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면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앞서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되지 않도록 질적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보조 연구원 2명과 함께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2019년 12월 말부터 2020년 1월 초까지 연구 참여자별 각 1회, 총 90분 이상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 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삼성 갤럭시 노트 8 모바일(mobile)로 음성녹음을 실시하였으며, 이메일(e-mail)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문제 질문지

번호	연구문제
1	태권도 4대 유관기관의 시범경연대회 현황 및 경기규정은 어떠한가?
2	2019태권도원 경연대회 시범부문 격파 채점기준에 대한 심판의 인식은 어떠한가?

3. 자료 분석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원자료를 전사한 후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면담 내용을 구체화 하였다. 먼저 2020년 1월 말까지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컴퓨터에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전사단계(transcribing)를 실시하였다. 이후 유사성 여부에 따라 심층면담 자료를 조직하고 전개해 면담결과를 재구성한 후 나열하여 주제의 의미를 범주화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범주화 과정 및 분석 내용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동작의 정확도	정확한 발차기 완벽한 타격 격파 성공여부 기술 수행 후 착지 전체적인 연결과정 동작의 정확한 이해	격파성공여부와 착지 전체적인 기술 수행	명확한 평가항목의 부재
격파 위력	폭발적인 타점 강한 충격력 파괴적인 기술 시각적 효과	위력의 정도	
격파 수량	실패한 격파 수 실패 비율	실패한 기술	명확한 체점기준의 부재
기술의 난이도	회전각 체공 간 기술발휘 수 격파물의 높이 신기술 다양한 기술종목	종합적인 난이도	
창작성 예술성 구성력	시범의 틀 시도하지 않는 기술 동작의 표현 태권도의 미적 가치 다양한 기술 구성 기술의 배치 동선 음악과 기술의 조화	기술의 표현과 미학	정량적 평가방법의 부재

4.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성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과 편향된 시각으로 자료가 해석되고 왜곡된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않도록 구성원 간의 검토와 동료 연구자 점검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삼각검증법, 구성원 간 내용 검토 및 조언, 연구 참여자의 내용 검토 및 조언,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 등의 자료의 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들을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전 연구 동의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태권도 시범경연대회 현황 및 경기규정 분석

1) 시범경연대회 현황

태권도 4대 유관기관의 2019년도 시범경연대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태권도 4대 유관기관의 2019년도 시범경연대회 현황 분석

기관명	세부기관	대회명
국기원	세계태권도한마당 조직위원회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한태권도협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한국대학태권도연맹대회
세계태권도연맹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
태권도진흥재단	-	태권도원 경연대회

국기원은 세계태권도한마당조직위원회에서 세계태권도한마당을 주관하고 있으며(세계태권도한마당, 2019), 대한태권도협회는 산하단체인 한국대학태권도연맹에서 한국대학태권도연맹대회를 주관한다(한국대학태권도연맹, 2019). 또한 세계태권도연맹은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에서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를 주관하며(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 2019),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태권도원 경연대회를 주관한다(태권도진흥재단, 2019).

2) 시범경연대회 경기규정

태권도 4대 유관기관의 2019년도 시범경연대회 경기규정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태권도 4대 유관기관의 2019년도 시범경연대회 경기규정 분석

구분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대회명	세계태권도한마당	한국대학태권도연맹대회 \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	태권도원경연대회
종목구분	팀 대항 종합경연	태권경연	시범 팀 대항	시범
선수인원	9~13명/여성 1명 이상 포함	9~15명	10~20명	10명/여자 1명 이상 필수
세부종목	창작품새 호신술 한 번 뛰어격파 여러 표적격파 회전격파 (가로돌기/세로돌기) 단체자유격파 위력격파	공인품새 창작품새 호신술 격파	창작품새 기술격파	호신술 단체연무 기술격파 위력격파
경기시간	5분 30초 이내	7분±5초	6분±20초	5분
경연방식	컷오프	-	-	컷오프

세계태권도 한마당은 팀 대항 종합경연, 한국대학태권도연맹대회는 태권경연,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시범 팀 대항, 태권도원 경연대회는 시범

으로 종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선수인원은 최소 9명~최대 20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대회는 여자 선수 1명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세부종목의 경우 세계태권도한마당은 창작품새, 호신술, 한 번 뛰어격파, 여러 표적격파, 회전격파(가로돌기/세로돌기), 단체자유격파, 위력격파로 순서는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나 가로돌기 회전격파와 세로돌기 회전격파는 반드시 이어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한 번 뛰어격파, 여러 표적격파, 회전격파, 단체 자유격파는 각기 다른 선수가 실시해야 하며, 여자 선수가 반드시 한 종목을 실시해야 한다. 경기시간은 5분 30초 이내이며, 시간 초과 시 최종점수에서 10초당 -3.0점을 차감한다. 경연은 컷오프방식으로 진행한다.

한국대학태권도연맹대회는 ‘팀 대항 종합경연(공인품새, 창작품새, 호신술, 격파)등으로 구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경기시간은 7분±5초이다.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창작품새와 기술격파를 실시하며, 경연 내에 창작품새는 7명 이상이 꼭 시연해야 한다. 경기시간은 6분±20초이다.

태권도원 경연대회 청소년, 대학·일반부는 단체연무, 호신술, 격파를 실시한다. 경기시간은 5분이며, 시간 초과 시 최종점수에서 10초당 -0.3점을 차감한다. 경연은 컷오프방식으로 진행한다.

국기원을 제외한 3대 기관의 대회는 구체적인 경연방법과 종목에 대한 세부 설명이 부족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수 및 지도자가 대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선수들이 대회에서 요구하는 경기규칙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최상의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경기규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시범경연대회 채점기준

태권도 4대 유관기관의 2019년도 시범경연대회 채점기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세계태권도한마당은 종목마다 정확성과 연출성을 채점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10~20점으로 다르게 평가한다. 또한 별도로 공연작품성

표 6. 태권도 4대 유관기관의 2019년도 시범경연대회 채점기준 분석

기관명	대회명	종목	채점기준
국기원	세계태권도 한마당	창작품새(20)	정확성(10)
			연출성(10)
		호신술(15)	정확성(5)
			연출성(10)
		한 번 뛰어격파(10)	정확성(5)
			연출성(5)
		여러 표적격파(10)	정확성(5)
			연출성(5)
회전격파(10)	정확성(5)		
	연출성(5)		
단체 자유격파(20)	정확성(10)		
	연출성(10)		
공연작품성(5)	위력격파(10)	작품성(5)	
		격파수량(10)	
대한태권도협회	한국대학 태권도연맹	공인품새	한마당 경기규칙의 채점기준을 따름
		창작품새	
		호신술	
		격파	
세계태권도연맹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창작품새(20)	정확성(10)
			연출성(10)
		기술격파(80)	난이도(25)
			숙련성(25)
			구 성(10)
	표현성(10)		
	정확성(10)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경연대회	호신술(2.5)	동작 실전성(0.5)
			동작 숙련성(0.5)
			창작성·예술성·구성력(1.5)
		단체연무(2.5)	동작 정확도(0.5)
			단체 일치성(0.5)
			창작성·예술성·구성력(1.5)
		격파(5.0)	동작 정확도(0.5)
			격파 위력(0.5)
격파의 수량(0.5)			
	기술 난이도(1.5)		
	창작성·예술성·구성력(2.0)		

에 5점을 부여하며, 위력격파의 경우 20장의 격파물을 지급하고 성공한 격파물 1장당 0.5점씩 평가하여 총 10점을 부여한다.

한국대학태권도연맹대회는 한마당 경기규칙의 채점기준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창작품새를 정확성과 연출성에 대해 종합 20점을 부여하며, 기술격파는 난이도, 숙련성, 구성, 표현성, 정확성에 대해 종합 80점을 부여한다.

태권도원 경연대회 청소년, 대학·일반부의 경우 호신술은 동작 실전성, 동작 숙련성을 채점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단체연무는 동작 정확도, 단체 일치성을 제시하고 있다. 격파는 동작 정확도, 격파 위력, 격파의 수량, 기술 난이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종목의 채점기준으로 창작성·예술성·구성력이 포함되어 있다. 종목별 배점은 2.5~5.0으로 다르게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최·승인한 대회는 채점기준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계태권도연맹과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주최·승인한 대회는 채점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세계태권도한마당의 채점기준 역시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되어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김영진(2018), 신호철, 이숙경(2015), 이용주, 전민우, 정재환(2019) 등의 주장을 고려했을 때 모든 유관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기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2. 태권도원 경연대회 시범부문 격파 채점기준 분석

2019태권도원 경연대회 시범부문의 격파 채점기준을 살펴보면 청소년, 대학일반 단체전의 격파 배점은 동작의 정확도 0.5, 격파 위력 0.5, 격파의 수량 0.5, 기술 난이도 1.5, 창작성·예술성·구성력 2.0의 세부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최고점 5.0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회요강에는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기준과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시범경연 시 격파 채점에 대해 각 항목별 심판의 채점기준과 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1) 동작의 정확도에 대한 채점기준 및 평가방법

동작의 정확도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정확한 기술로써의 격파 성공여부와 안정적인 착지를 평가한다는 의견과 준비부터 마지막까지의 전체적인 기술수행 과정을 평가한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AAA : 격파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준비과정부터 격파 후 착지까지 동작 하나 하나의 연결과정의 자연스러움과 몸의 중심이동, 안정성 그리고 균형을 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격파와 착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높은 점수를 줍니다.

BBB : 시범을 구성할 때 많은 격파기술이 나오는데 사실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보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발차기로 격파물을 완벽하게 타격하여 격파를 성공했는가의 여부와 기술 수행 후 착지가 완벽했는지를 봅니다.

EEE : 격파 동작의 정확도라는 것은 이 격파 동작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격파를 위한 자세와 기합, 동작의 표현, 차기, 완전한 착지 후 퇴장까지의 움직임으로 점수를 평가합니다.

정확한 기술로써의 격파 성공여부와 안정적인 착지에 대한 채점기준은 세계태권도한마당의 종합격파에서 정확성에 해당하며(국기원, 2019), 전체적인 기술수행 과정에 대한 채점기준은 한국체육대학교와 용인대학교총장기대회에서 기술동작의 완성도에 해당한다(용인대학교총장기조직위원회, 2019; 한국체육대학교총장배조직위원회, 2019).

동작의 정확도에 대해 동일한 평가항목을 심판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다른 관점에서 평가기준이 적용된다면 선수들은 경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회 주최기관은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채점기준에 대한 정보를 선수 및 지도자에게 제공하고 사전 심판교육을 통해 동일한 기준이 평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격파 위력에 대한 채점기준 및 평가방법

격파 위력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폭발적인 타점과 강한 충격력, 파괴적인 기술의 시각적 효과 등의 다양한 채점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정작 위력의 정도를 어떻게 수치화하여 점수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종합점수에 참고할 뿐이라고 답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AAA : 태권도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차기수행에서 격파자의 자세와 격파자가 격파를 할 때 정확하게 목표물을 가격하여 폭발적인 타점과 강한 충격력을 표현했는가를 보고 최종점수에 반영하지만 사실상 위력의 정도가 점수에 개별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EEE : 태권도 기술의 위력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위력격파의 정확한 이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위력적인 모습으로 정확하고 파괴적인 차기 혹은 치기, 지르기, 찌르기 등 태권도 기술로 수행하여 송판이 격파되는 시각적인 효과와 힘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연대회에서 펼치는 기술이 워낙 고난이도 기술격파 위주이기 때문에 위력적인 면모까지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격파란 수련을 통해 단련한 신체의 위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태권도의 무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행동양식이다(신호철, 이숙경, 2015; 이경명, 2000). 그러나 현재 시범경연대회에서의 격파는 고난이도 기술표현 중심으로 강도가 약한 송판을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위력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겨루기 경기와 같이 장비를 이용해 충격량을 수치화하는 일은 현재로써 실현되기 어렵다. 이에 동일한 기술에 대해 선수가 직접 격파물의 강도와 매수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세계태권도한마당의 팀대항 종합경연과 같이 위력격파를 필수 종목으로 포함하고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격파의 위력을 평가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사료된다.

3) 격파 수량에 대한 채점기준 및 평가방법

격파 수량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경연 중에 실패한 수량을 파악하여 최종점수에 반영하고 있으나 채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심판마다 평가방법이 다르다고 답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CCC : 따로 격파물 수량을 파악하지 않고 경연 중에 실패한 수만큼 나중에 격파 채점 시 격파의 정확성 부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평가합니다. 차감하는 점수는 큰 실수 즉, 아예 발이 닿지 않은 실수와 작은 실수 즉, 기술의 표현은 잘되었지만 격파가 안됐거나 보조자의 실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EEE : 모든 팀이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송판의 수량 내에서 격파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장을 사용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실패한 기술에 대해 송판점수를 차감하는데 실수 비율에 따라 점수 폭을 정해놓고 채점합니다.

시범경연대회에서 격파 수량은 결국 격파의 성공여부를 의미하며, 이는 명확하게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난이도 기술로 모든 격파를 성공한 팀과 고난이도 기술 중에서 결정적인 격파 실수를 한 팀의 평가가 심판들마다 큰 격차를 보이면서 명확한 채점기준과 평가방법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신호철, 2013; 이용주, 허재성, 김기남, 2019).

경연대회에서 선보이는 시범 기술은 단순히 차고, 치고, 지르고, 막는 연속적인 태권도 동작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은 오랜 시간 고심하여 동작 하나 하나를 연결하고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해서 기술을 선보인다. 따라서 평가항목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우수한 선수와 팀에게 높은 점수가 부여될 수 있는 격파 수량, 즉 격파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기술의 난이도에 대한 채점기준 및 평가방법

기술의 난이도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회전각, 체공 간 기술발휘 수, 격파물의 높이, 신기술 등의 대회에서 선보이는 기술만큼이나 채점기준 또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방법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CCC : 사실 요즘에는 모든 팀들의 기술 수준이 비슷해서 기술의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선보였던 기술보다 회전각, 체공 간 기술발휘 수, 격파물 높이가 월등히 좋은 기술에 높은 점수를 주거나 지금 까지 선보이지 않은 신기술을 최고 점수에 놓고 난이도를 임의로 정한 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점을 합니다.

DDD : 저는 선수들이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크게 도약격파, 가로회전격파, 세로회전격파, 장애물격파, 트릭킹격파로 봐요. 이렇게 5가지의 격파기술을 분류하고 기술별 최고 난이도에 대한 격파 매수, 체공력, 회전각, 격파물 높이 등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기준표를 만듭니다. 이 기술 난이도표를 토대로 완벽한 타격과 착지 그리고 표현성까지 이루어졌을 때 최고의 점수를 부여하고 그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차등점수로 평가를 합니다.

인체의 기능적인 능력과 미학적 움직임을 평가하는 체조는 기술 난이도의 성공여부가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평가 요소이다(이한솔, 2017). 난이도와 감점요소를 종합해서 순위가 결정되는 만큼 선수는 자신의 기량에 맞는 난이도를 선택하여 전략적인 훈련을 통해 경기에 임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전개되는 경기진행 과정에서 채점기준 없이 발휘되는 기술의 난이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심판이 선호하는 기술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기술의 난이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선수들은 미리 점수를 예측하고 전략적인 계획 하에 훈련에 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기 중에 연습을 하는 듯한 준비되지 않은 기술을 선

보이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충분한 연습으로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범경연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기술격과에 대한 난이도와 감점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채점 규정집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창작성·예술성·구성력에 대한 채점기준 및 평가방법

창작성·예술성·구성력에 대해 창작성은 새로운 시범의 틀, 시도하지 않은 동작, 격과와 음악의 사용을 평가하고, 예술성은 동작의 표현, 태권도의 미적 가치를 본다고 하였다. 또한 구성력은 다양한 격과종목의 구성, 기술의 배치, 동선, 음악과 격과의 조화를 평가한다고 하였으며, 세 가지 항목을 통합하여 음악과의 조화, 시범의 구성을 평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같이 각 항목을 나누어 평가한다는 의견과 항목을 통합하여 평가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으며, 평가에 있어서 애매한 기준으로 변별력을 주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BBB : 우선 창작성은 지금까지 선보이지 않았거나 기존 시범의 틀을 깬 기술표현과 구성을 봅니다. 그리고 같은 동작을 구사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표현성과 예술성의 점수를 부여하고, 구성력은 다양한 격과 종목을 고르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평가를 하는데 세 가지의 요소를 따로 점수 매기는 어렵고 종합적으로 보는데 사실 점수 주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CCC : 저도 창작성, 예술성, 구성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음악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관객의 입장에서 격과 기술을 모두 볼 수 있을 만큼 시각적으로 구성을 잘하였는지, 선수들은 시범의 전반적인 구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테마를 주제로 한다면 격과와 스토리가 잘 연결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기준점을 정해서 평가합니다.

EEE : 저 같은 경우는 각 팀의 창작성과 예술성, 구성력을 점수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창작성의 경우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은 움직임들

이나 격파, 음악 등을 평가하고, 예술성은 태권도가 가진 미적 가치를 고민해 보고 이에 대해 평가합니다. 구성력은 전체적인 짜임새, 즉 격파와 격파간의 움직임, 격파자와 보조자들의 이동 동선, 음악과 격파의 조화 등 태권도 시범 경연을 통해 느껴지는 조화들을 생각하여 3개의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분배해서 최종점수로 평가를 하는데 특히나 다른 항목보다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개입되어 점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채점하고 있습니다.

시범경연대회에서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는 현재의 대회운영방식은 차별화된 대회를 통해 독특하고 창의적인 대회문화를 만들어 태권도 시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채점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판정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시범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범은 태권도 기술의 우수성과 아름다운 예술적 미학을 담고 있으며, 현재는 공연의 요소가 가미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시범경연대회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태권도 기술, 예술성, 연출성 등의 영역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평가항목과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평가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태권도 유관기관에서 주최·승인한 시범경연대회의 현황과 경기규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태권도 4대 유관단체에서 주최·승인한 시범경연대회 모두 구체적인 경연방법, 세부종목, 평가항목, 채점기준 등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아예 제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원의 채점기준도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선행연구(김영진, 2018; 신호철, 이숙경, 2015; 이승환,

2014)의 의견을 고려했을 때 모든 기관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경기 규정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2019태권도원 경연대회 시범부문의 격과 채점기준에 대한 심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평가항목에 대한 설명의 부재로 심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수 및 지도자가 경연의 취지를 파악하고 준비한 결과를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대회 주최측은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시범경연대회는 애초에 채점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회 주최측은 시범의 평가항목, 채점기준, 평가방법 등의 통일된 경기규정 마련을 통해 객관적인 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예술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종목은 심판이 측정도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판의 판정을 수치화 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주최측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격과 평가항목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합동작, 품새, 호신술 등의 다른 종목에 관한 연구는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시범경연대회에서 요구하는 전 종목별 평가항목과 채점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2019태권도원 경연대회 시범부문에 참여한 심판으로 제한하여 다른 심판들의 의견을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시범대회 심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향후 태권도 시범경연대회의 경기규칙을 제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희(2015). 피겨스케이팅의 예술성 평가요인이 융합적인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2**, 1-10.
- 국기원(2019). www.kukkiwon.or.kr
- 김기동(2012). **세계태권도한마당의 변천과정**.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김미선(2018). **시각탐색을 통한 댄스스포츠 심판시스템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김신호, 정현도(2015). 세계 태권도 한마당 국제심판의 심판판정 공정성에 관한 연구.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1**, 13-26.
- 김영진(2018). **태권도 시범경연대회의 현황 및 발전방안**.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영진, 전정우(2018). 태권도 시범경연대회의 현황 및 발전방안. **국기원 태권도연구, 9**(4), 43-64.
-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2019). **2019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 대회요강**.
- 박주미(2019. 4. 03). 인공지능(AD)이 체조를 채점한다고? 양학선 “아주 좋아요!”. KBS NEWS. 2020년 8월 00일 발췌, <https://news.zum.com/articles/51263976>
- 배진남(2020.01.23). [도쿄올림픽]종목소개(18)태권도 연합뉴스 2020년 8월 28일 발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2125200007?input=1195m>
- 세계태권도연맹(2020). www.worldtaekwondo.org
- 세계태권도한마당 조직위원회(2019). **2019 평창세계태권도한마당 경연요강**. 서울: 국기원.
- 신기철, 구본철(2017). 태권도 한마당 심판 판정에 관한 심판과 선수의 인식비교.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8**(4), 1-13.
- 신호철(2013). **태권도 격파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규칙 개선**.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신호철, 이숙경(2015). 태권도 격파경기규칙 분석을 통한 격파경기 활성화 방안.

국기원 태권도연구, 6(1), 157-178.

용인대학교 총장기 조직위원회(2019). **용인대총장기전국태권도대회 대회요강**. 용인: 용인대학교.

이경명(2000). **한국 전통무예의 철학 태권도**. 서울: 형설출판사.

이승환(2014). **태권도 시범경연대회의 발전방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이용주, 전민우, 정재환(2019). 태권도 시범대회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7(4), 1031-1038.

이용주, 허재성, 김기남(2019). 대학 총장기(배) 태권도 시범대회의 문제 탐색 및 발전에 관한 연구. **국기원 태권도연구**, 10(2), 43-61.

이한솔(2017). **기계체조 국가대표선수와 세계우수선수들의 이단평행봉 난이도 비교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태권도진흥재단(2019). **2019 태권도원 경연대회 대회요강**. 무주: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대학태권도연맹(2019). **제42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개최요강**. 서울: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배 조직위원회(2019). **2019 한국대학교총장배 시범부문 채점 규정**. 서울: 한국체육대학교.

한혜진(2016. 9. 27). 태권도 ‘폼새’ 도...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추가’ . 무카스. 2020년 8월 28일 발췌, <https://mookas.com/news/15151>

ABSTRACT

Perceptions of Judges on Scoring Criteria of Breaking in Taekwondo Demonstration Contests

- Focusing on the Demonstration Part of the 2019 Contest Held by Taekwondowon -

Park, Dong-Yeong · Ban, Eun-A(Baek-seok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ituation of demonstration contests of taekwondo-related institutions and perceptions of judges on contest rule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rules in demonstration contests held and approved by four taekwondo-related institutions are not clear. And, the analysis of perceptions of judges on breaking in the demonstration part of the 2019 contest held in the Muju Taekwondowon revealed the followings. First, the institution holding such a contest should suggest more specific scoring items matching the purpose of the contest. Second, the institution should suggest a more specific scoring system. Third, the institution should suggest a quantitative scoring method. Consequently, there should be support for preparation for game rules to make such contests fair sports events through more precise and concrete scoring criteria and assessing methods.

Key words: 2019 Taekwondo demonstration contest, Competition rules of breaking, Judgment

논문투고일 : 2020.06.30.

심사일 : 2020.07.10.

심사완료일 : 2020.07.31.

